

# 곡성군, 퇴비 생산 '악취 제로화' 나선다

### 전국 지자체 유일 '부산물자원화센터' 악취 최소화 방안 모색 악취저감시설 구축 앞서 광주시 위생매립장 등 2곳 벤치마킹

곡성군이 퇴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저감시설'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어 주목된다.  
곡성군은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퇴비 생산·공급 시설인 부산물자원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개소한 센터는 농민들에게 품질 좋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퇴비를 공급함으로써 영농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 축분을 원료로 퇴비를 만들어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에 따르는 수고를 덜어 주며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축분원료는 고품질 퇴비로 재생

산되고 있지만 반입과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악취저감시설 구축하기로 하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다. 군은 악취저감시설 설계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4일 군산의 화현농협 농축산순환자원센터와 광주광역시광역시위생매립장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곡성군과 동일한 목적의 시설로 운영되는 화현농협에서는 악취저감 방법과 자원화 시설 운영 시스템, 경영방식 등 전반적

인 운영상황을 비교 분석하며 발전방안을 고민했다.  
또 광주시 위생매립장에서는 악취저감 시설이 가동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며 기대상으로 악취 저감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최선의 악취저감시설 설계에 노력할 것"이라며 "군에서 생산한 퇴비의 공익성을 적극 홍보하고 농민들의 편의 증대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 보성군, 11월 한달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

보성군은 11월 한달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교통안전의식향상과 위급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이번 교육은 지난 2일 보듬이나눔이 보성어린이집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지역내 13개소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11명의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문 강사가 연령별 눈높이에 맞춰 안전한 보행방

법 3원칙(서다·보다·걷다) 체험교육과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 인식 교육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군은 안전지수 향상과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이장단, 각급 기관·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 '가고 싶은 섬' 보성 장도 생태 탐방로 정비 등 본격 손님맞이 채비



'가고 싶은 섬' 보성 장도가 마을 게스트 하우스와 식당을 마련하고 탐방로를 정비하고 본격 손님맞이에 들어갔다.

보성군에 따르면 전남도 '가고 싶은 섬' 14곳에 선정된 보성 장도가 지난 10월 완도 생일도에 이어 여덟 번째로 '섬 여는 날' 행사를 가졌다.

장도는 2016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뱃배가 있는 풍경 천연 갯벌'이라는 컨셉으로 2년 동안 방문객 편의를 위해 마을 게스트하우스와 마을식당을 오픈한데 이어 생태 탐방로 등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열린 행사에는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철우 보성 군수 등 지역의 주요인사와 14곳의 '가고 싶은 섬' 주민 대표단 및 장도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장도 출항 향우 50여명이 참석, 오래전 떠났던 고향이 '가고 싶은 섬'으로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한 감회를 느끼는 등 섬 여는 날의 의미를 더했다.

장도는 습지보호구역 및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갯벌이 있는 곳으로 국가어업유산으로도 지정된 뱃배를 타고 꼬막을 캐는 <사진>주민들의 일상 자체가 문화인 곳이다.

방문객들은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한 장도만의 문화를 천연 갯벌과 생태 탐방로를 통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포스코 고흥수련원에서 열린 '2018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 관계자들이 해외바이어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 고흥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200만달러 MOU 체결 성과

고흥군은 최근 포스코 고흥수련원(동일면)에서 열린 '2018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 200만 달러 MOU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열린 수출 상담회는 전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주관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고흥지역 우수 농수특산품을 해외 시장에 알리고 수출 거래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7개국 7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했으며 고흥군수협을 비롯한 지역 내 12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여기업들은 해외바이어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청정지역 고흥 농수특산품의 우수성을 소개했으며, 고흥군 대표 수출 품목인 유자·석류·감·미역·다시마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귀리·무설탕 잼 등이 해외 바이어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수출 상담 결과 독일 트로렉스트랙트 유한회사(대표 Ingo Kniepert) 및 미국 코리아세어 주식회사(대표 서창훈)와 각각 100만 달러씩 총 200만 달러의 MOU를 체결하고, 55건의 수출 상담으로 214만 달러(상담액 및 계약추진액)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다.  
특히 상담 후에는 해외 바이어가 수출

업체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품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기회를 가져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고흥군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관내 수출기업들이 열정적인 의지로 해외시장을 개척했기에 최근 우리 군 수출실적이 회복세에 있다"며 "우리 군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 판로개척 지원 등 수출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 곡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착수

곡성군은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도시지역 일원(15.4km)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공청회를 통한 주민 참여형 계획 수

립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는 세부적으로 군 도시재생의 정책방향과 비전, 도시재생 구상 및 전략,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자원조달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오는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0개월간 곡성군 시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잠

재력과 법적·제도적 기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과 주민여론을 수렴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 전라남도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군은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로드맵'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 구례군 18개 단체 참여 농민단체연합회 창립총회

구례군농민단체연합회는 최근 구례군 화예술회관에서 농업관련 18개 단체가 참여하는 농민단체연합회 창립총회(사진)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농민단체연합회는 농경분야에 구례군 농민회, 여성 농민회 및 축산분야는 한우 협회 외 4개 단체, 수도작, 임업, 친환경 경, 채소, 화훼, 유통, 관광분야 영농조합 등 18개의 농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정인화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 김승식 구례군의회 의장, 농협조합장과 농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농민단체연합회는 총회에서 농업지원 제도 개선과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업예산의 증액, 온·오프라인 농산물 유통대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 고흥군, 내년 주민참여예산 총 379건 96억여원 편성

고흥군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379건 96억7300만원을 편성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 39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17억37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민선 7기 군정 기조인 원칙과 균형, 투명한 행정 구현 의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적극 반영

하기 위해 '2018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난 14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중 읍면별 신청받은 제안사업 149건 141억원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62건 41억2300만원을 2019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읍면 자체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통해 이미 결정된 읍면 제안사업 317건 55억5000만원도 2019년도 본예산안에 100% 반영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 가능성 속옷 의명가

KCPBA 2016, 2011 코리아인베스트먼트상, 2011 코리아인베스트먼트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 1588-2219